

수출·투자·사업화로 이어진 AI 혁신... 산업 생태계 한눈에

현장르포

2026 월드IT쇼

과기부, 국내 최대 ICT 전시회 개막
삼성·LG·통신3사·카카오·기아참여
‘행동하는 AI’ 내걸고 미래상 제시
피지컬 AI·반도체·로봇 특별관 조성
가우디오랩 등 혁신기업 수상 영예
수출상담회·인재양성 행사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제품과 서비스를 총망라한 ‘2026 월드IT쇼’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월드IT쇼는 ICT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다.

올해 월드IT쇼 슬로건은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AI, 현실을 움직이다’이다. 인류의 삶과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박윤영 KT 대표이사(가운데)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월드IT쇼’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전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조민선기자

로 변화시키고 있는 ‘피지컬 AI 대전환’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성전자·LG전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카카오·기아 등의 국내 대표 글로벌 기업과 마음AI·대동 등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망 기업 등이 전시에 참여했다. 올해는 ‘어워드테

크관’, ‘글로벌관’, ‘엔터테크관’, ‘K-AI 반도체 생태계관’ 등 4개의 특별관을 새롭게 구성하여 전시 콘텐츠를 한층 강화했다.

월드IT쇼 개막에 맞춰 열린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은 K-콘텐츠 해외 수출 과정의 음원 분리·교체, 더빙, 자막 등을 AI 기술로 자동화한 플랫폼을

개발한 가우디오랩 주식회사가, 국무총리상은 생성형 AI 기반 챗봇으로 변호사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법률 특화 AI 서비스를 개발한 주식회사 로엔컴퍼니가 수상했다.

또한, 이동통신망의 코어(Core)망부터 무선접속망(RAN), 기지국단의 셀사이트라우터(CSR)까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 별도 전용 하드웨어 없이 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삼성전자를 포함한 6개 기업이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월드IT쇼에 참가한 AI·ICT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월드IT쇼 혁신상에는 반도체 공정 및 공정장비 진단용 통합 시스템을 개발한 주식회사 비엔에스알(BNSR)을 포함한 10개 기업이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글로벌 ICT 전망 컨퍼런스’에서는 피지컬 AI 등 산업 현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들은 AI가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

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ICT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2026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CT 고급인재양성 사업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ITRC) 인재양성대전 2026’을 동시에 개최하여, ICT 분야 산·학·연을 모두 망라한 성과를 관람객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AI·ICT 유망 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이어와의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ICT 바이어 수출상담회’도 개최됐다. 영국, 중국, UAE 등 14개국에서 해외 바이어 50개사가 참여했으며, 국내기업 190여개사와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SKT, 엔비디아와 초거대 AI 학습 협력 성과 공개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서 사례 발표
A.X K1 학습에 핵심 솔루션 도입
후속 K2·멀티모달 연구도 본격화

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성과를 ‘엔비디아 네모트론 디벨로퍼 데이즈 서울 2026’ 테크니컬 패널 세션을 통해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2021년 공개한 A100 GPU 기반 슈퍼컴퓨터 ‘타이탄’ 구축부터 데이터·인프라·학습 환경 전반에 걸쳐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후 SKT 독자 AI 모델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기술 협력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AI 모델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담당자들과 원격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SK텔레콤

수행하며 매개변수 5190억개(519B) 규모의 초거대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원(A.X K1)’ 학습에 엔비디아 네모트론

데이터셋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SKT는 대규모 모델 분산 학습 프레임워크인 ‘메가트론 LM(Megatron-LM)’과 학습 데이터 준비·정제를 위한 엔비디아 네모 큐레이터를 활용해 초거대 AI 학습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SKT가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고도화하고,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뼈대가 되는 프레임워크의 완성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 또한 전문가 혼합(MoE) 같은 신형 구조로 초거대 모델을 만든 경험과 이를 뒷받침하는 개발 인프라 관련 정보를 공유, 대규모 학습을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SK텔레콤 모델 개발 부서와 엔

비디아의 기술 지원 부서는 격주 단위로 소통하며 학습 인프라의 안정성, 성능 향상, 최적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후속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투(A.X K2)’ 학습에도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활용하는 한편, 양사 기술 수준 고도화에 필요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모델에 활용될 멀티모달과 비전 언어모델(VLM) 등 차세대 기반 기술 영역에서도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로 선보인 A.X K1의 후속 모델인 A.X K2 개발 등 국내 소비자 AI 생태계를 위한 협업도 이어간다.

/조민선 기자

삼성SDS

업무 자동화부터

시스템 현대화까지

업무 자동화·개발 혁신 해법 제시

삼성SDS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과 IT 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삼성SDS는 22일 금융 기업 고객을 초청해 ‘삼성SDS 인터스트리 데이’ 세미나를 열고,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한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소개했다. 인터스트리 데이는 금융, 공공, 제조·유통, 국방 등 주요 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솔루션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권의 AI 도입이 가속화되는 흐름에 맞춰 업무 자동화와 시스템 현대화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서현 기자

SKB ‘B tv+’ 누적 시청 1억시간 돌파

출시 21개월 만에 이용 지표 상승세

SK브로드밴드는 IPTV 서비스 B tv의 구독형 VOD 상품인 ‘B tv+’의 누적 시청이 1억 시간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B tv+’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약 20만 편의 콘텐츠를 추가 결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상품이다.

OTT 구독료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결합한 ‘B tv All+’ 요금제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점도 이용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B tv+’를 월 5500원 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지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7월 출시 이후 약 21개월 만에 누적 시청 1억 시간을 기록했으며, 가입자의 콘텐츠 이용량은 미가입자 대비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B tv 해



SK브로드밴드 IPTV 서비스 B tv의 구독형 VOD 서비스 ‘B tv+’가 누적 시청 1억 시간을 돌파했다.

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콘텐츠 수급 전략도 이용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신 작품을 빠르게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인기 콘텐츠를 재편성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B tv를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최대 4대 기기에서 동시 시청이 가능한 점도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김서현 기자 seoh@

LGU+, AI 서비스 전반 고도화

몽고DB와 데이터 관리 협력 체계 구축

LG유플러스가 데이터 고도화를 인공지능컨택센터(AICC)에서 AI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 몽고DB와 ‘AI 서비스 관련 데이터 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AI 컨택센터(AICC)에서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몽고DB의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몽고DB 아틀라스’를 통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과거 고객과의 상담 내용과 대화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고객 응대를 지원하고, 상담이 종료되면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과 상담 코드 추천 등 후속 업무를 돕는다.

업무 효율 성과도 확인했다. 평균 상담 처리 시간을 약 7% 단축하고, 자원

효율 또한 약 30% 개선됐다.

이에 따라 몽고DB와 협력을 강화해 데이터 활용 경험을 전사 AI 서비스로 확대한다. 분산된 데이터 운영 구조도 개선해 AI 서비스 응답 효율과 운영 안정성도 높일 방침이다.

몽고DB는 AI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배포, 확장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AI 특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해 텍스트, 대화 로그, 고객 이력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저장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키워드 중심의 검색에서 고객 문의와 맥락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 AI 서비스 개선을 넘어 레거시 시스템을 AI 환경에 맞는 구조로 전환하는 ‘아키텍처 현대화’도 협력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엔씨

하반기 글로벌 출격

‘아이온2’ 승부수

권역별 서버·10개 언어 지원

엔씨는 MMORPG ‘아이온2’의 글로벌 출시 일정을 올해 하반기로 확정하고 PC 기반 MMORPG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스팀과 퍼플을 통한 PC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오늘부터 스팀 공식 페이지에서 위시리스트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엔씨는 북미, 남미, 유럽, 일본 등 주요 권역별 서버를 구축하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중국어 간체와 번체 등 총 10개 언어를 지원한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